

영농비 폭등 소득 '반토막' 전남 농축산업이 무너진다

“면세유·비료·농약 값 안정 대책 절실”

면세유와 비료, 농약 값 등의 인상으로 영농비는 대폭 늘어났지만 농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폭락해 올해 전남 지역 농축산 농가의 소득이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지역 농축산 농가의 소득 하락폭은 전국 농가 평균 소득 하락폭 보다 훨씬 큰 것이어서 전남지역 농축산업의 붕괴 우려마저 낳고 있다. 24일 전남도가 발표한 '전남지역 농축산업 실태'에 따르면 전남지역 한우 농가의 올 총소득은 800억원으로, 지난해 1천600억원에 비해 50%

가 줄어든 전망이다. 600kg 짜리 수소 한 마리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27% 하락(480만원→350만원)한데다 사료 값이 50% 이상 오르면서 실질 소득이 반 토막난 것이다. 전남 한우 축산업은 3만6천266 농가에서 40만2천300마리를 사육, 전국 2위 규모다. 낙농업 농가 소득도 430억원에서 290억원으로 약 30%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가을배추(2천184ha) 역시 지난해 1kg 당 가격이 820원에서 480원으로 41%

떨어진데다 비료 값 인상 등이 겹치면서 배추농가의 실질소득은 지난해 260억원대에서 절반 이상인 135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1수(1천352ha, 전국의 15%)는 kg당 지난해 800원에서 올해 450원으로 43% 떨어져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액도 지난해 140억원대에서 70억원대로 급감했다. 나주를 비롯해 전남지역 4천536ha에서 재배되고 있는 배도 지난해 1kg 당 평균 1천400~1천500원 하던 것이 올해는 1천100~1천200원으로 30%가량 떨어지고 비료 값과 농약 등 영농비 부담이 늘면서 실질 소득은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

이 같은 지역 농가 소득 하락폭은 이날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채소 -27.9%, 과일 -26.0%, 축산 -17.2% 등 전국 평균 하락폭보다 훨씬 커 전남지역 농업인들이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지역 농업인들의 생계 유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우선은 면세유와 비료, 농약 값 등의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사료 안정기금제 등 경영비 안정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신지에 LPGA 'ADT 챔피언십' 우승 ... 100만 달러 안았다



신지애가 2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파72·6천523야드)에서 벌어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DT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호주의 카리 웹을 1타차로 누르고 우승한 후 100만 달러(약 15억 원)의 상금을 안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지애는 올 시즌 LPGA 비회원으로 3승을 거두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내년에 본격 진출하는 LPGA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관련기사 22면 /연합뉴스

“F1, 한국·전남 브랜드 업그레이드 호기”

코리아 F1 국제포럼

전남도가 2010년부터 개최하는 F1대회(국제자동차 경주대회)에 대한 민국과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초대형 국제행사인 만큼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3면> 또한 F1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인프라

사 시설 사후활용 방안 등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도와 KAVO(F1대회 운영법인) 주최로 24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300여명의 모터스포츠 분야 전문가와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코리아 F1 국제포럼'에서 국내외 F1 및 모터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안톤 솔트 조선대 교수는 “2010 F1대회는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여, 전남의 역점

사업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선도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이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도 “F1대회 개최 성공조건”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자체와 시민단체, 국민이 함께 하는 공동의 자리를 마련하고, 경주장을 비롯한 인프라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도 “2010 F1대회는 제조업(2차)과 관광서비스산

업(3차)이 결합된 2.5차의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포럼을 마친 참석자들은 “2010 F1대회 성공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F1특별법의 신속한 통과와 대회 성공을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결의했다. ‘코리아 F1 국제포럼’은 88올림픽과 2002 월드컵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한국 최초로 전남에서 개최되는 F1대회에서도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2010년부터 한국 최초로 전남에서 개최되는 F1대회는 지난 5월 SK건설, 신한은행, 농협, 광주은행 등 대기업과 제1금융권 등의 사업 참여가 확정됐으며, 영암군 삼호읍에 건설중인 F1경주장은 201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24일 현재 토목공사 공정이 약 35%가량 진행되고 있다. /홍형기·채희종기자 redplane@

개성관광·남북철도 중단

北 초강경 조치 통보 ... 정부 “심각한 유감”

북한은 24일 오는 12월 1일자로 개성관광 및 협력사업과 관련한 남북 협력사업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차단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하고 개성공단 남북 상주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고강도' 통행 차단 조치를 남측에 통보했다. <관련기사 5·11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다음 달부터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간의 모든 교류협력 사업들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북측은 이날 '각종 협력·교류와 경제 거래 등을 목적으로 육로를 통해 북측을 드나드는 모든 남북 민간단체들과 기업인들의 육로 통과를 다음

달 1일부터 차단하고 경험과 교류협력 사업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차단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북측은 다만 '불가피하게 육로를 통과하게 된 물자와 운반자에 대해서는 건별로 엄격히 검토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측은 또 개성관광과 문산-봉동 구간을 다니던 경의선 열차의 운행을 중단하는 한편 개성의 남북 경험협의 사무소를 폐쇄하고 사무소의 남북 관계자들을 전원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다만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앞

으로 보낸 통지서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발표한 조치들에 대해 “1차적”이라고 언급한 만큼 향후 남북관계 상황 여하에 따라 개성공단의 전면적 중단을 향해 조치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이 남북관계 차단과 관련한 조치를 통보한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화에 호응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중·고생 겨울방학 학습특강!
 개강: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강사진

호남한샘학원
 교내전화: (062) 222-1111
 홈페이지: http://www.hosams.ac.kr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평생교육원
 남부대학교 평생교육원
 남부대학교 평생교육원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성무리구 대우W 5층
 062-221-1111

YB윤도현밴드
 광주콘서트

2008. 11. 29 SAT 7:30PM, 30 SUN 5:00PM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6
 티켓구매: 티켓마루, 티켓링크, 옥션티켓